

## Z의 고백

안녕하세요, Z씨.

편지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요 몇 주간 알 수 없는 발열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가 적절하게 사회와 타협해 가고 있는 2020년 4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열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확진자 동선에 걸쳐져 있지도, 해외여행 경력도, 귀국자와의 접촉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열은 해열제로도, 항생제로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겁이 덜컥 나더군요. 나도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며칠이 지난 후에도 차도가 없어 결국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허무하게도 음성이더군요. 저는 어쩌면 차라리 코로나19이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인 있는 발열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코로나19의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병명은 알 수 있겠지요. 때로는 병명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의 때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원인도 찾지 못한 채 몇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포는 커져 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제가 과거 겪었던 병의 재발로 인한 발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마도 오랫동안 다시 병원을 드나드는 신세가 될 것이고, 어쩌면 죽음에 보다 가까워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몇 주 동안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뀐 항생제와 해열제가 겨우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료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제야 겨우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사실 이 글의 처음은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솔지 작가의 개인전 《진공-된 몸》에 대한 리뷰를 요청받았고, 3월 말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3분의 2 정도를 쓰고는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제가 전시와 거리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전시 자체라기보다는 아마 Z, 당신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병을 겪었고 만성질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은 아주 조용한 경험이었지만 저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에 당신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제멋대로 당신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처음 안솔지 작가에게 당신에 대한 대강의 정보를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엉뚱한 외견을 상상하였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어디에 시선을 돌지 몰라 하는 눈, 얇고 희미한 머리카락으로 두피가 흰히 보이고, 피부가 얇고 투명하여 정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팔, 바짝 마른 다리와 팔자로 뻗은 발. 누군가가 말을 시키면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해 버벅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계속해서 무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혼자 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지독한 결벽증을 가

진 누군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Z가 이다지도 생활흔적이 제거된 <소독방>을 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무겁고 투명한 커튼, 소독과 관계된 물품 이외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깔끔한 선반, 각종 바이러스의 분류에 관한 정보들, 소독의 절차 등에 대해 어질러진 정보들. 이 정도의 공간을 꾸리기 위해서는 필시 결벽증에 가까운 강박이 있을 것이라 혼자 상상했습니다. 바깥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3시간의 단장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을 보듬고 나서야만 하는 류의 누군가. 돌아와서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되지 않는.

요컨대 저는 우리와는 다른 몸 체계를 가진 외계인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지구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외형이 도시에 적합하게 진화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전시 서문에 '모두와 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살덩이'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당신은 완전한 타자였던 셈이지요. 제가 떠올린 외계인에 대한 표상은 SF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얇은 상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솔지 작가가 보내준 '다형적 상처'의 텍스트는 나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텍스트의 화자가 묘사하는 당신은 무척이나 쾌활해 보였고 열정적이었고 적당한 사회성을 가진,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동양 여성이었죠. 음식점의 손님으로 온 화자에게 건강을 염려하여 맥주보다 물을 권하고 단골과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잠시 뒤로하고, 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안솔지의 개인전 《진공-된 몸》은 질병과 적응에 관한 작가 개인의 경험을 담은 <부유의 동결>과 <옛보기>, 그리고 당신의 일대기를 다룬 텍스트 작업 '다형적 상처'에 기반을 둔 <소독방>과 <소독가이드> 구성되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던 <소독방>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당신이 한국에 당도하여 임시로 자리잡은 스위트라는 전시공간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작품이지요. 고장난 면역체계를 가진 당신의 신체는 외부의 알 수 없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로서 소독을 택했습니다.

<소독방>에서는 나지막이 <소독 가이드>가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진 가이드는 낮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세 시간에 한 번씩 에탄올과 정제수, 생리식염수, 멸균 거즈, 면봉, 보습제 등의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여 눈, 코, 입부터 목, 겨드랑이, 팔꿈치, 양손, 손톱 밑, 배꼽, 외음부, 무릎 뒤, 발등,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몸의 부위마다 소독방법을 달리하여 순서에 따라 꼼꼼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지시합니다. 소독 가이드에 따르면 전신을 소독하면서 어제의 나와 달라진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몸의 적응 과정을 살펴야 하지요. 소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문화적 편견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위생과 청결을 통해 자신의 몸과 주변공간을 완전무결하게 만드는 실천, 이는 전시 제목 '진공-된 몸'의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은 실천일 뿐, 언제든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공격, 편견,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당신이 고정된 캐릭터가 아니라 그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공-된 몸’ 자체가 당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안솔지 작가가 소개하기로 당신은 사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안솔지 작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상당 부분 발원하여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이 함께 녹아 있으며, 전시를 통해 관객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경험을 대입하기도 할 것입니다. Z라는 이름도 익명의 누군가, 그리고 모두를 위해 남겨진 ‘진공’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작품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보다 따로 떨어진 섬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공간은 애초에 어둡게 되어 있었고 입구와 창문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가벽의 틈새로 빠져나오는 빛이 작품의 외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관객이 다가 가면 작품에 설치된 전구에 빛이 들어오면서 관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작품의 유기적 관계보다는 단절과 틈을 통해 각각의 작품이 관객과 마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 진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무엇일까요? 무엇을 뺀단 걸까요? 남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건, 나의 경험을 표백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저에게 ‘진공’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경험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익명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작가의 경험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 이방인이자 여러 질병에 취약한 몸을 가진 동양인 여성으로 정체화되어 있고, 서구 백인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여러모로 약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류세계의 타자로서 당신이 겪은 경험에 공감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경험을 리셋하여 다른 사람의 경험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들에 의해서 덕지덕지 증식되고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나의 경험 하나쯤 당신의 자리에 얽히게 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저는 당신과의 거리두기에 기꺼이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동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를 위해 깨끗이 소독되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오염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당신을 정말 진공의 상태로 두려고 했다면 전시에는 <부유의 동결>이나 <옛보기>와 같은 작품이 함께 병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자는 작가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보낸 짐들이 엉망으로 다뤄진 나머지, 부서지고 뒤엎힌 짐의 잔해들에서 건져낸 오브제들을 다듬고 쌓아 올린 결과물입니다. 이 작품은 외국에서의 오랜 부적응 - 여기서의 부적응은 문화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적응의 상태도 포함 합니다 - 의 상태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작가 자신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 되리라는 기대가 완벽하게 무너진 작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오롯이 반영합니다. 그야말로 그는 부유해 있는 것이지요. <옛보기>는 덜어내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신체의 상태를 컴퓨터프로그램의 톨로나마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렇듯 전시장은 Z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자기고백도 함께 나타내고 있지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진공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가의 자기고백이 함께 공존할 수 있었고, 저와 당신을 아른히 겹쳐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장을 찾은 모든 관객이 저와 같이 당신과 자기 자신을 대입할 수 있다

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다시 당신에 대해 가졌던 편견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저는 처음에 당신을 타자로 뚫으로써 당신과 저를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혹은 무너지는 사회 시스템의 재건을 위해 종종 타자를 적으로,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포섭시킴으로써 주류세계의 가치와 도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타자인 순간 모든 가치와 도덕은 스스로 세워야만 합니다.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지요.

다시 고백하건대, 저는 한동안 이를 잊고 지냈습니다. 아니, 억지로 잊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의 응답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했습니다. 나의 몸을 먼저 인식하면, 내 눈앞에 주어진 일들에 완전히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주간의 경험이 다시 저를 그때의 저로 되돌렸습니다. 당신과 같이 계속해서 제 몸을 돌보아야 하고, 눈앞의 편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매순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자 저는 당신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상상했던 당신을,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당신을 지우고 당신을 저와 겹칠 수 있었습니다. 거리두기에 실패했으니, 이 글은 절대로 비평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당신에게 저의 감상을 솔직하게 편지로 전달해 봅니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 당신을 뵈게 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건강하길 기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할 것이며, 주변의 시선 및 편견들과 끊임없이 대결하거나 타협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란 사회적으로 형성된 윤리적 제안이자 허황된 이상일 뿐이니까요. 그때까지 아무쪼록 잘 지내고 계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서울,  
유은순 드림